

“폭언·폭행 배구부 코치 교체” 촉구

광주 A중 학부모들, 기자회견 열어

학교 측 “경찰 조사 중...사실 확인 시 교체”

광주의 한 중학교 배구부 코치가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부모들은 즉시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즉시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A중학교 배구부 학부모들은 29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구부 코치를 현재 K 코치가 아닌 전문선수를 육성할 만한 자격을 갖춘 지도자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1년8개월 동안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코치를 믿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선수와 학부모들은 코치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치가 경기 중 폭력을 행사하고 연습과 전지훈련 중 수시로 선수들에게 폭언과 협박, 파동립 등 지도자로서 자질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

부 선수들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때 우승 4회 등을 하던 선수들이 지금은 중등부에서 최하위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K 코치 부임 이후 2명의 선수가 타 시도로 이적하고 4명의 선수가 배구선수의 꿈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K 코치는 겸직급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모배구클럽을 지도하고 정기적 수당을 받았다”며 “심지어 2017년 경상남도 도민체전에 거창군 배구 선수로 등록하고 경기를 뛰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 코치가 배구 선수 지도·육성이라는 고유의 업무보다는 배구를 이용한 개인적인 일에 더 치중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런 지도자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부터 2차례



광주 A중학교 배구부 학부모가 29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언과 폭행 일삼는 K 코치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의 전국대회 출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지도자 교체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K 코치는 언론을 통해 ‘감독이 부모님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공격한다’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A 중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듣고 자체 조사를 했다”며 “K 코치에게 폭언·폭행 등에 대해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청소년보호센터와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K 코치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당연히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K 코치는 지난 19일 학교에 별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K 코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뇌물 요구한 광주 서구 공무원 징역 5년

건물 준공 승인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29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 한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19일 오전 9시3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현금 7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경찰의 수사를 받게돼 변호사를 선임했

다”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변호사 선임비 700만원을 달라. 건물 준공을 해주겠다”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1월초에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왜 약속을 안지키냐. 돈을 빨리주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마복동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발미로 B씨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슈 판결

이웃 살해 뒤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징역 25년’

“다수 범죄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교화 징후 없어”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9일 오후 2시 살인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9)에게 “1996년부터 다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고 복역 중 심회 징벌, 출소 이후 보호관찰보고를 봐도 교화 징후를 찾을 수 없고 참회와 속죄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년간 전자발찌 착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비취 사전에 범행도구 준비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불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다투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재범 위험을 고려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광주 클럽 붕괴 이유...‘적정하중 1/9수준 설계’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사고 원인은 복층 구조물의 하중이 적정 수준의 1/9 수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29일 광주 클럽 안전사고 수사 본부에 따르면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증축된 곳은 하중계산이나 구조검토 없이 설계가 됐고, 지재 및 시공 방식 역시 부적절했

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설계 이후에도 유지나 보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조사를 벌인 강구조학회와 보고결과를 살펴보면 붕괴된 클럽의 복층 구조물이 전문가에 의해 설계 및 시공이 됐다면 1㎡당 300kg의 하중을 받도록 설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골구조물 지재가 200mmX100mm, 두께 4.5mm의 철골구조물로 설계가 됐어야 했지만 실제로 시공된 구조물은 100mmX50mm, 두께 1.4mm로 굉장히 약한 구조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1㎡당 3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당 35kg의 하중만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

이다. 사고 당시 70kg 성인 40명이 올라갔을 때 하중은 1㎡당 123kg이 되므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 후에도 진동으로 인해 구조물의 피로강도가 낮아지면서 하중을 지탱하는 철골기둥의 붕괴로 이어졌고, 결국 구조물 전체가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당시 클럽 입장은 조제상 허용인원을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18농성단 “5·18가해자 부정축재 환수특별법 제정하라”

국회 앞 농성 200일차를 맞이한 ‘5·18 역사왜곡처벌농성단’(농성단)이 5·18가해자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성단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성단의 국회 앞 농성이 200일을 맞이했지만 5·18의

핵심적 진실은 여전히 묻혀있다”면서 “광주학살 책임자들은 북한 특수군의 개입 폭동설 등 역사왜곡에 동조하면서 국론이 분열됐고 5·18의 역사적 가치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농성단은 이날 △전두환 신군부가 39년간 누린 범죄수익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 △5·18가해자들의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 △5·18가해자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을

제정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것 △5·18역사왜곡처벌법의 입법과 5·18진상조사위 출범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했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진실증언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농성단은 “신군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지난 23일 아들을 통해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면서 “39년

만의 사죄는 늦었지만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진실없는 화해는 없기에 하루빨리 5·18의 진실을 밝혀 참회의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정배·유성엽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천 의원은 “한국당을 비롯한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광주를 모욕하고 있음에도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는 현실이 고통스럽다”면서 “5·18 4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모든 문제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공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지,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므로,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